

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악화

~ 개인소비 침체가 하락세 요인으로, 향후는 실질임금의 플러스 전환이 열쇠 ~

(조사대상 2만 7,104사, 유효회답 1만 1,410사, 회답율 42.1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4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6포인트 감소한 43.5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. 국내경기는 개인소비가 침체함과 더불어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등 코스트 부담의 증가도 있어 2개월 연속 후퇴하였다. 향후의 경기는 호재와 악재 각각의 요인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개인소비 정체 외에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불충분한 가격전가 등의 영향으로 『농·임·수산』 『운수·창고』 를 제외한 8개 업계에서 악화되었다. 지역별로는 『츄고쿠』 를 제외한 9개 지역에서 악화되었다. 저조한 관광산업은 각 지역의 체감경기를 하락시킨 요인이 되었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 이 보합이었으나 「중소기업」 과 「소규모기업」 이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.
- 관광DI는 46.3으로 전월 대비 1.7포인트 감소하여 3개월 만의 악화로 나타났다. 전년 동월로부터는 3.6포인트 감소로 대폭 악화되었다. 기업으로부터는 인바운드는 호조이나 국내여행자의 소비가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다수 들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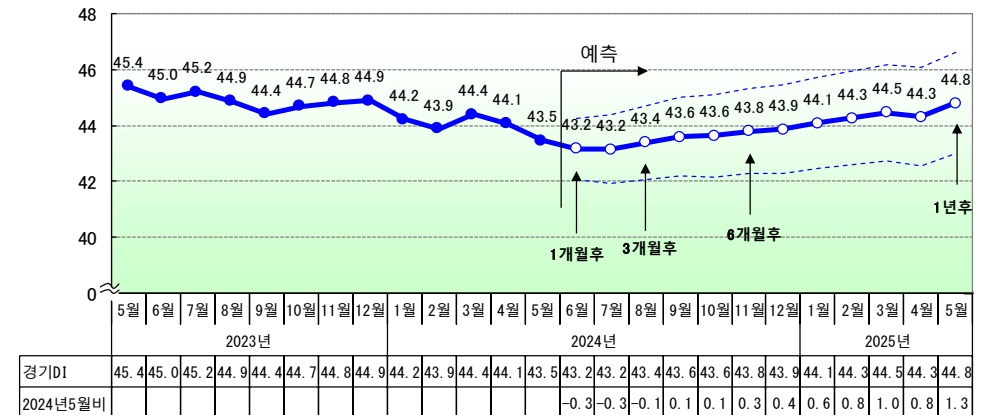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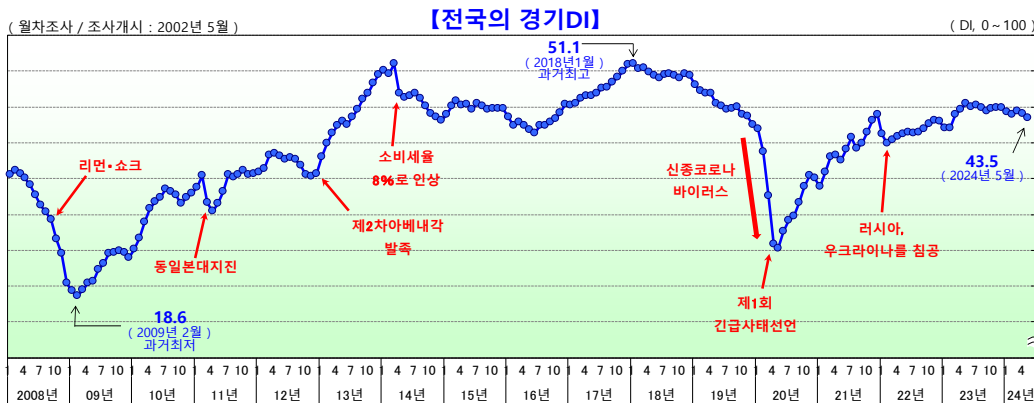
< 2024년 5월의 동향 : 2개월 연속 후퇴 >

2024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6포인트 감소한 43.5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. 국내경기는 개인소비가 침체함과 더불어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등 코스트 부담의 증가도 있어 2개월 연속 후퇴하였다.

5월의 국내경기는 실질임금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인소비DI가 대폭 악화되었고 거기다 국내여행을 포함한 관광산업이 저조하여 주요관광지를 품은 지역이 침체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.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인건비 급등과 더불어, 2024년 문제 대응에 따른 코스트 부담 증가, 불충분한 가격전가 등도 하락세 요인이었다. 한편 자동차 생산재개 및 활발한 인바운드 소비는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. 게다가 분양맨션의 건설수요 및 반도체 관련 공장의 진출, 호텔관련 설비투자는 호재였다.

< 향후의 전망 : 보합경향으로 추이 >

향후는 임금인상 및 정액 감세 등 가계의 소득환경 개선으로 인한 개인소비 동향이 포인트가 되는 가운데, 실질임금 하락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이 열쇠가 될 것이다. 자동차의 만회생산 및 인바운드 수요 증가, 실리콘 사이클의 회복 등도 호재로 보인다. 한편 해외경제의 하방리스크 외에 일본은행의 추가금리인상 및 인력부족, 전력 등 각종보조금의 종료, 폭넓은 자동차업계의 부정문제로 인한 영향도 주목된다. 향후의 경기는 호재와 악재 각각의 요인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.



※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고 있다.